

# 漫畫가 兒童의 讀書活動에

##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1)

柳 在 植

(晉州中安國民學校教師)

編輯者註：1968年 10月 18日 서울教育大學에서 開催된 1968年度 全國教育研究大會 學校圖書館分科에서 發表한 優秀研究論文임

### 1. 緒 論

#### A. 研究의 目的

「讀書은 마음의 糧食」이라는 말이 있다. 또 책은 한平生 읽어야 한다는 뜻으로 「終身讀書」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終身讀書건 一時讀書건간에 讀書가 마음의 糧食이 되게 하려면 善고(良書) 알맞은(適書) 책을 바람직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條件下에서도 教室 하나씩을 비워서 圖書室을 設置하는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圖書室은 外面한 체 ——勿論 讀書를 學校圖書室에서만 하라는 意圖는 아니지만 ——먼저 투성이오 어두컴컴한 漫畫가게에서 漫畫를 보느라 沒頭해 있는 兒童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① 왜 漫畫를 저다지도 즐겨 읽을까?

② 저 漫畫는 兒童이 읽어서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지 오래다.

그러나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언젠가 新聞記事에 「어떤 學生이 漫畫에서 본 대로 再演을 하여 유괴당한 양부모에게 脅迫 편지를 내어 社會를 當황케한 일」이 報道된 적도 있다.

더구나 요즘은 소위 不良漫畫로 해서 이 漫畫問題는 한 사람 한 家庭, 한 學校의 일이 아니라 一大 社會問題化에 이르렀다.

이에 本 研究者는 이상 記述한 바와 같은 事態에 대한 根本的인 要因을 把握하여 兒童들을 보다 바람직한 讀書生活로 이끌 수 있는 善後策을 究明해 보려 하였다.

#### B. 問題의 記述

本 研究는 漫畫를 分析하고 兒童의 愛讀實態를 把握한 資料를 中心으로

1. 漫畫의 內容, 用語, 描畫, 造本에 걸친 問題點 및
2. 兒童이 漫畫를 보는 各種事態에서 일어나기 쉬운

#### 問題點이

3. 兒童의 바람직한 讀書活動을 沮害하는 바를 찾아서
4. 漫畫에 대한 對策을 講究코자 한다.

#### C. 研究方法

1. 文獻 및 文書資料의 調査分析
2. 漫畫分析 ——20卷(67, 68年度 各 10卷)
3. 實態調査

質問紙(3種) ——學校教師 150名

司書擔當教師 50名

兒童 150名

作文 짓기 ——50名

4. 資源人事 訪問 ——晉州地區 漫畫總販主人成氏
5. 通信連絡 ——兒童漫畫 自律會(서울, 西大門區)

#### D. 研究期間

1968. 4. 1~1968. 7. 31(4個月間)

#### E. 用語에 대한 約束

##### 1. 讀書 異常兒

讀書에 대한 그릇된 習性을 가진 兒童, 즉 讀書遲滯兒, 讀書不振兒, 讀書偏向兒, 讀書不安兒, 讀書早熟兒, 讀書分裂兒를 包含한다.

##### 2. 兒童文化財

學校 以外의 場所에서 非制度的으로 이루어지는 教育活動에 作用하는 事物들, 즉 兒童出版物, 兒童繪畫, 兒童工作物, Radio, T.V. 등.

## II. 兒童과 漫畫

### A. 漫畫와 그 種類

#### 1. 漫畫의 本質

漫畫는 본래 풍자와 유머를 驅使하여 可笑性과 人生批判을 公命으로 하는 그림인데 어린이의 漫畫는 이와는 달리한다. 풍자를 理解하려면 生活이나 社會現象에 대한 知識과 그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批判力이 없이는 理解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國民學校 低學年 때는 「우스꽝스러움」을 이해하기는 하나 社會에 있는 矛盾을 알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實話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다가 高學年이

되면서 知的 能力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어린이의 漫畵에 있어서는 그림 이외에 文句가 많은 것이 특징의 하나인데 文句에 使用되는 用語는 普通말로서는 興味가 없다고 하여 流行語나 禁止된 말을 使用하게 된다.

2. 漫畵의 起源

漫畵는 古代 爨료의 壁畵에서 始作되어 中世紀의 風俗漫畵, 15世紀頃의 版畵, 16世紀의 Comenius가 만든 「世界圖解」, 19世紀 프랑스의 「모니어」등의 出現으로 近代漫畵를 確立시켰다<sup>1)</sup>고 한다.

이와 같은 西洋의 漫畵는 社會教育에 利用되기 시작하면서 興味를 끌게 되었으나 現在 우리 나라는 漫畵가 教育上에 끼치는 利害의 論難이 社會問題化 되었다.

3. 漫畵의 種類

對象者를 區別하여 兒童漫畵, 青年漫畵, 成人漫畵 등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兒童漫畵는 다시 冒險漫畵, 活劇漫畵, 生活漫畵, 古典漫畵, 動物漫畵, 探偵漫畵 등으로 나눌 수 있고 成人의 漫畵는 藝術漫畵, 風俗漫畵, 社會漫畵 등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sup>2)</sup>

이제 兒童漫畵에 있어 그 種類別로 特徵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a. 冒險漫畵

이것은 Super man의 生活를 그린 것이 大部分으로 新發明의 武器와 그것을 찾아내는 나라의 스파이 그리고 Super man의 超文明의 活躍 같은 種類이다. 所謂 文明의 利器를 써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그 利器는 現實의 基礎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많다.

타자 漫畵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다만 다른 점은 野蠻의 강한 맛을 發揮케 한 것이다.

b. 活劇漫畵

Indian을 素材로 하는 西部劇이나 祖國의 獨立을 위하여 日本官憲과의 對決, 大小戰爭 등에서 勇을 휘두르거나 칼싸움을 벌이는 따위이다.

c. 生活漫畵

어린이의 身邊生活에서 題材를 구하여 우스꽝스런 것을 끌어내어 相對便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다.

가히 兒童漫畵의 本道라 할 것이다.

d. 古典漫畵

偉人의 傳記와 名作 등을 漫畵化한 것으로 「갈리브 여행기」, 「로빈슨크루소」나 「홍부와 놀부」 등을 漫畵化하여 出版하고 있는 것이다.

e. 動物漫畵

이것은 動物을 主役으로 하거나 사람과 共同으로 登

揚시키거나 해서 곳곳에 웃음을 일으켜서 간드러지게 하거나 비유하는 따위이다.

f. 探偵漫畵

國家對 國家 또는 個人對 個人의 利益追求를 위하여 秘密을 캐내기 위하여 벌어지는 所謂 스틸과 Suspense에 가득찬 것이 그 特徵이다.

B. 讀書興味の 發達과 漫畵

讀書興味の 發達は 個性이나 社會의 事情에 따라 달라진다. 興味라고 하는 것은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個人과 環境과의 相互關係에 의하여 發展 變化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우리의 行動이나 生活는 主體가 가진 內部的 要因과 그에 關係되어진 環境의 要因과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營爲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讀書興味の 發達을 한 마디로 斷定하기는 어려우나 讀書興味の 段階的 發達과 兒童의 讀書內容에 비추어 漫畵의 位置를 살펴 보겠다.

1. 漫畵興味の 段階的 發達

日本の 阪本一郎 씨의 研究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마치 다른 읽을거리가 「옛이야기」에서 비롯하여 「우화」나 「逸話」……등으로 興味가 段階的으로 發達되어 가듯 漫畵도 취학전의 「그림이야기」에서 시작하여 7~9세 경에는 成功失敗漫畵, 8~11세 경에는 冒險漫畵, 11세 이후부터의 生活漫畵, 14세 이후부터의 풍자漫畵 등으로 興味가 發達되어 가면서 兒童期에 있어 많이 읽혀지게 된다.

그로서 국민학교 1學年生은 寓話와 漫畵를 壓倒的으로 많이 읽으며 2學年이 되어서도 持續이 되다가 3學年이 되면 漫畵나 童話外的 읽을거리에도 범위를 넓혀 漫畵는 약간 減少되는 傾向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讀書興味の 發達は 年齡이나 學年段階 이에 그 사람의 讀書歷이나 讀書習慣에도 크게 基因한다는 점에 注意할 필요가 있다.

讀書興味の 發達段階<sup>2)</sup>

학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학년	取學前		1~2年		3~4年		5~6年		中學生			
원칙	옛이야기期		高誌期		童話期		이야기期					
漫畵	(그림이야기)		(모험)				(농자)					
			(성공실패)				(생활)					
읽을거리	(옛이야기)		(우화)		(소년문학)		(생활동화)		(흥족문학)			
							(광상이야기)		(현화)			
							(우경이야기)		(소년이야기)			
			(단화)		(모험, 탐경이야기)							
					(전설)							
									(전기)			
									(역사이야기)			

1) 教育評論 1965年 12月號 p. 120 (朴台碩 執筆)

2) 讀書指導講座 9卷, 兒童讀物と讀書指導, 東京, 牧書店, 1956. pp. 236~237 (波多野完治 執筆)

3) 阪本一郎 編, 讀書指導ハンドブック, 東京, 牧書店, 1957. p. 32.

2. 讀書興味の 發達條件

앞에서와 같이 讀書의 興味が 段階的으로 發達하는 것이라면 個人的 段階에 맞는 바람직한 讀書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讀書興味の 條件을 把握하여 이를 開發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이제 讀書興味の 條件을 學者의 見解에 따라서 보면,<sup>4)</sup>

a. Hartman, G.W 씨는

- ① 兒童의 未來의 興味
- ② 可及的 直接的인 刺戟을 많이 줄 것.
- ③ 모든 知識을 다룸에 있어 可能한 限 兒童의 人格에 密着시켜 나아갈 것.

b. 鈴木清 씨는

- ① 必要한 일에서 부터 出發할 것.
- ② 具體的인 場面에서 가져 올 것.
- ③ 周圍에서 一般的으로 處理하는 方法 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것이든 讀書興味를 促進시키는 必要한 條件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教育의 具體的 場面을 考慮해서 整理를 한다면,

- ① 讀書興味の 發達段階에 알맞고
- ② 環境의 條件을 整備하고
- ③ 兒童相互의 交渉을 보다 促進하고
- ④ 兒童의 生活意慾을 高調시키는 일이 보다 學校圖書館의 側面에서 본 接近方途라고 본다.

G. 娛樂을 위한 읽을거리로서의 漫畫

요즈음 雜誌를 비롯한 漫畫, 傳記, 冒險, 探偵과 같은 娛樂性이 강한 單行本 등이 兒童의 成長에 끼치는 危險性이 論難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娛樂을 위한 읽을 거리는 漫畫가 그리 하듯 쉽고 재미있고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데서 많은 흥미를 갖고 읽혀진다.

그러면 俗惡한 兒童文化財로 부터 兒童을 보호하기 위해 娛樂物의 特徵부터 알아 보겠다.

1. 兒童의 娛樂을 위한 읽을거리의 特徵

兒童이 재미있다고 하는 所謂 娛樂性의 本質과 그 娛樂性을 만드는 出版社의 營利性이랄까 商業性을 파헤쳐 娛樂性과 營利性이 곧 兒童의 娛樂을 위한 읽을거리의 長點인 同時에 問題點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a. 娛樂性

첫째로 재미있는 읽을 거리라는 것이다.

그림 한쪽 글 한 귀절이 모두 「재미있다」 이같이 兒童을 재미나게 하는 것이 곧 兒童의 成長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兒童의 娛樂을 위한 읽을거리를 編輯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兒童에게서 「우습고 재미있다」는 歡聲을 들을까에 腐心을 한다. 여기에 問題가 있다.

無條件 兒童을 재미나게 하려는 安易한 製作態度에서 社會가 愈慮하는 危險性이 벗어진다.

둘째로 알기(理解)가 쉽다.

漫畫는 그림만 보고도 별스런 努力을 하지 않고도 즐거리를 알게 된다. 場面으로 잘라진 여러개의 그림을 連續시키면서 즐거리 말을 덧붙여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유우모어와 우스꽝스런 점이다.

兒童은 어른과 달라서 「우스운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과 더불어 漫畫같은데서 「우스꽝스러움」을 發見하도록 되어 있다.

네째로 空想性和 冒險性이다.

어린이의 空想的인 꿈을 좋아하는 마음도 重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것이 兒童의 兒童다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하기 때문이다.

b. 營利性

兒童들은 無理하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고 즐거리가 재미있는데만 끌려서 가기 때문에 出版社는 이 弱點을 集中的으로 겨누어서 全力을 傾注한다. 兒童은 아랑곳 없이 大量販賣에 血眼이 된 商業性和 利潤追求라는 營利에 눈이 어두워 兒童의 읽을거리에 暗影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2. 兒童의 娛樂을 위한 읽을거리의 讀書指導

兒童文化財의 最大의 役割은 經驗範圍가 좁은 어린이에게 自然現象이나 社會現象을 바르게 認識시키도록 仲媒하는 것이다.<sup>5)</sup>

따라서 漫畫마위를 읽게 할 때에는 「가려서 읽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積極的으로 指導에 臨할 必要가 있다.

a. 생각하면서 읽게 한다. (問題發見的 讀法)

비록 漫畫가 쉽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思考의 密度를 높이는 方向으로 讀書指導를 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가 興味를 갖는 漫畫는 教師가 먼저 읽어보고 읽게해야 한다.

b. 동무들과 함께 읽도록 한다. (Group 學習으로서의 讀法)

問題의 發見은 教師나 父母의 도움만으로는 모자란

4) 讀書指導講座 2卷, 讀書指導의 心理と生理, 東京, 牧書店, 1956. pp. 148~149 (大西誠一郎 執筆)

5) 讀書指導講座 9卷, 兒童讀物と讀書指導, 東京, 牧書店, 1956, p. 36. (早川元二 執筆)

다. 兒童들끼리 討論을 하고 問題發見의 惹慾을 높여  
서 發見한 問題의 解決을 길게 하는데 惹義가 크다.  
처음에는 자연스런 所感程度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具  
體的인 問題에 接近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다.

D. 要 約

종자와 익살로 批判과 우스꽝스러움을 本質로 하는  
그림이 漫畫이다. 다른 읽을거리와 마찬가지로 段階別  
로 讀書興味가 發達해가는 兒童期에 많이 읽혀지게 되  
어 있는 것이 漫畫이기도 하다. 國民學校 1,2學年 때  
에 가장 많이 읽혀지나 점차로 그 興味가 減少된다.

漫畫가 兒童에게서 즐겨 읽혀지는 것은 그것이 가진  
娛樂性 때문인데 이 娛樂性에 無條件 迎合하는 製作者  
의 安易한 態도와 營利性으로 말미암아 兒童의 成長에  
危險性을 內包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쉽게 만들어진 漫畫이지만은 漫畫를  
읽는 兒童의 思考形成에 積極 介入하여 讀書態度를 充  
實히 해야 한다.

III. 漫畫와 그 愛讀實態

A. 漫畫의 出版

- 1. 우리 나라의 出版 傾向과 漫畫  
우리 나라 出版物의 種類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出版種別 統計表(66年度)

種別	總類	法政	哲學	工學	藝術	文學	教育	歷史	社會經濟
數量	43	74	69	81	118	447	83	65	127
種別	宗教	產業	語學	醫學	學習參考	兒童	漫畫	其他	計
數量	258	90	164	32	700	229	5,340	26	7,946種

(韓國年鑑 1967. p. 41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漫畫는 斷然 으뜸이다. 全  
出版種數가 7,946種인데 대해 漫畫는 그것의 67.2%에  
해당하는 5,340種에 이른다. 위에서 優先 種別 順位  
를 보면 漫畫를 필두로 學習參考書, 文學書, 宗教書,  
兒童圖書 ……의 順인데 量的인 面에서 漫畫가 얼마나  
많이 出版되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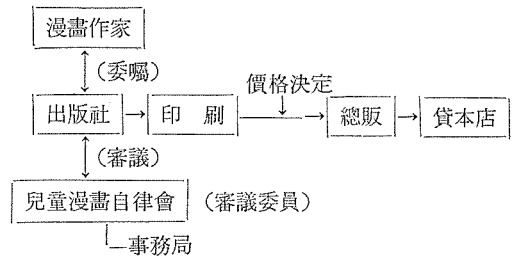
2. 漫畫의 出版過程

漫畫의 出版傾向에서도 言反된 바이지만 좀 더 具體  
的으로는 現在 우리 나라에서는 6個의 出版社에서 150  
餘名の 漫畫家에 의해 每月 1,200餘種에 달하는 150  
餘萬部の 兒童漫畫가 發行되고 있는데 이중에는 不分明  
한 出版社와 作家에 의해 不法 出版되는 漫畫도 50

餘萬部가 끼어 있다. 마침내 社會의 輿論에 못 이겨  
다음과 같은 「兒童漫畫自律會」라는 것을 만들었으나  
그 機能은 期待할만한 것이 못 된다.

兒童의 心身發達을 考察하여 倫理準則을 制定하여  
漫畫原稿를 檢討한 後 印刷하도록 되어 있으나

- a. 漫畫作家 自體가 出版社에 專屬 또는 直營形態이  
고
- b. 漫畫自律會의 審議委員도 漫畫作家 十餘名으로 構  
成되어 있으며
- c. 兒童의 嗜好에만 迎合하는 商業性
- d. 거의 獨點하다시피한 企業經營 등으로  
審議는 事務局 職員의 事務的 處理程度로 出版을 보  
게 되어 있다.



圖表는 晉州市 漫畫總販 主人成氏의 說明에 의해  
作成함.

B. 漫畫의 內容, 文章表現, 抽畫, 造本의 分析

67年度 및 68年度版 各 10卷씩 都合 20卷을 無選  
標集하여 內容, 文章表現, 描畫, 造本에 걸쳐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1. 漫畫의 內容

- a. 이들 漫畫의 主題를 살펴보면

책 이 름	주 제	책 이 름	주 제
어린이 은모래 산모래	정의감 순정	불개미 사이곤	강도단 파월국군
공기총 용두창	우국지정 칼싸움	레슬러 하와이소녀	운동과애정 과거상실증
피노키오 잔지발	모험 모험	캥거루씨 오징어	동물 산업스파이
까마귀 올림픽소년	비극 권투	하얀공주 소녀왕비	동화 비련
사마이	모험과자신	새서방	모험

b. 漫畫內容의 問題點

圖書選擇의 基準<sup>6)</sup>에 의해서 一般的인 問題點을 列記  
하면

- (1) 事實을 歪曲하여 正確性이 없는 事例가 있다.

6) 阪本一郎編, 讀書指導ハンドブック. 東京, 牧書店, 1956. p. 109.

「세서방」의 경우, 大監인 아들을 찾아 서울로 가는 어머니의 행차가 북마리를 이고 간대서야 되겠는가?

(2) 新鮮性と 獨創性이 缺如되어 있다.

“거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漫畫內容이 비슷 비슷하다. 「하얀공주」는 동화 「白雪公主」를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요 「흐름」의 힌트를 얻어 엉뚱하게 조작한 감이 있고 「정의는 이기는 것이다」 라는 투의 칼싸움과 쓸데없는 「스릴」의 삽입 등이 그것이다.

(3) 健全性이 考慮되지 않고 있다.

「은모래 금모래」의 일종의 「작사랑」을 은근히 露出시키는 흐름이라든지 「소녀왕비」에서의 「마술」을 풀어달라고 팔을 피우는 등의 性感刺戟 등은 피해야 했다.

(4) 너무도 單調로운 事例가 있다.

「올림픽 소년」의 경우 그저 치고 받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또 치는 것이 無味하게 循環되고 있다.

(5) 虛無맹랑한 皮기를 조작하고 있다.

「오징어」에 있어서는 醫師의 手術로 오징어가 된 것까지는 좋으나 오징어를 날아다니게 構想한 것은 理解하기 어렵다.

(6) 主義를 注入하는 印象을 준다.

아무리 「우스꽝」과 「익살」을 본질로 하는 漫畫라 할 지라도 읽는 兒童 自身에 의하여 消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이곤」의 경우 無條件 派越國軍의 칭찬 式으로만 展開하면 兒童은 派越國軍의 「참말로 훌륭한 점은 모르게 되는 結果가 될 것이다.

(7) 지나친 征服感의 強調가 눈에 띈다.

活劇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漫畫가 終局에 이르러 칼을 목에다 꽂을 듯한 場面을 露出시켜 殘忍性을 불러 일으키고 勝利感에 도취되는 事例가 허다하다. 自然이라면 몰라도 人間이 人間을 征服하는 것과 같은 小英雄心의 助長은 피해야 할 것이다.

2. 漫畫의 文章表現

便宜上 類別로 區分하여 具體的으로 列記하기로 한다. →는 틀린 것을 바로 잡아 준 것이고 ( )안은 해당하는 冊名을 表示한 것이다.

a. 맞춤법이 틀린 것

(1) 單語를 混頓한 것

• 잊어먹으면→잊어버리면(물건의 경우 까마귀)

(2) 준말을 잘못 表記한 것

• 얼마예요→얼마예요? (켄겨루 씨)  
• 처없애→쳐없애 (사마이)  
• 험 하면→함(테슬러)

(3) 소리나는대로 表記한 것

• 메는구나→되는구나 (불개미)  
• 막키지는→막히지는 (산유화)  
• 반가운 이리요→반가운 일이요 (잔지발)

(4) 입음꼴의 잘못 表記

• 진정하거든→진정되거든 (은모래금모래)

(5) 기 타

• 가렸다→가렸다 (하얀공주)  
• 굴쩍→굴쩍 (올림픽소년)  
• 깊숙이→깊숙히 (옹두검)  
• 불이라→불여라 (피노키오)  
• 이렇도로→이렇도록 (잔지발)  
• 총앙→송앙 (올림픽소년)  
• 그런거리면→그런거라면 (어리병병)  
• 간대요→간대요 (몰아온 빨)  
• 왜 이리쪼→왜 이렇쪼 (하와이소녀)  
• 발시국→발자국 (불개미)  
• 수십쇼→주십쇼 (사이곤)

b. 띄어 쓰기가 틀린 것

(1) 매김씨(指示語)는 거의 띄어 쓰지 않고 있다

• 그(11회) 그공장 (잔지발) 등  
• 이(7회) 이집주인 (몰아온 빨) 등  
• 저(3회) 저애들 (어리병병) 등

(2) 그림씨와 이름씨 사이를 떼지 않는 것

• 어리석은녀석 (불개미)  
• 노린내 (켄겨루 씨)  
• 좋은분 (사마이)  
• 살던곳 (세서방)  
• 보논법 (어리병병)

(3) 그림씨와 불완전 명사를 떼지 않은 것

• 이루어진게 (잔지발)  
• 들어와있는걸 (공기총)  
• 모든걸 (어리병병)  
• 당해낼수 (공기총)  
• 부서지는것 (공기총)  
• 살아나신것 (하와이소녀)  
• 싸울것이다 (산유화)  
• 그럴수가 있다 (어리병병)

(4) 主語와 述語사이를 빼지 않은 것

- 너는 뭐냐? (피노키오)
- 저진 뭐냐? (공기총)
- 난 알고있어 (은모래금모래)

(5) 數詞를 띄어 쓰지 않은 것

○ 한개씩만 (산유화)

(6) 其 他

- 한강물속에 (공기총)
- 시간이 없어 (레슬러)
- 눈을감고, 살구나무밑에, 말씀쭈물렸어요 (새서방)
- 싫어빨티와야지 (까마귀)
- 지금당장 (어리병병)
- 너희들도이피들이 (잔지발)
- 못생겼다. (피노키오)
- 끊어질때까지 (산유화)
- 또 그럴래? (캥거루 씨)
- 이리내봐 (사마이)
- 콩그의다리가 (잔지발)

(7) 붙여 써야할 곳을 띄어 쓴 것

- 피상 한, 수고 했군 (공기총)
- 처벌 하려는 (피노키오)
- 귀찮아 겠네 (하와이 소녀)

c. 文章符號를 잘 못쓴 것

文章符號에 있어서는 결핍하면 느낌표(!)나 물음표(?)를 쓰고 있으며 쉼표(,)나 마침표(.)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

(1) 틀리게 쓴 것.

- 그러겠지? (소녀왕비)
- 잘 지키던 그만이지? (사이곤)
- 망원경을 사랑해야 왜! 그들의 활약을 무시할 수 없어! (사이곤)

(2) 부호를 써야할 곳에 안 쓴 것.

- 불개미 서랏(.) (불개미)
- 맞았어(.) 풀이야(.) (하얀공주)

(3) 쓸데없이 이층으로 쓴 것

- 탕! 탕탕!! (불개미)
- 예?? (하얀공주)

d. 사투리를 예사로 쓴 것

- 아서라—그만 두라는 뜻 (오정어)
- 무지무지하게 (잔지발)
- 헌테—그런테 (사마이)
- 꼬마—어린아이 (새서방)
- 켜켜하다(피노키오)

e. 時語 (流行語)를 함부로 쓰고 있는 경우

- ① 하얀공주—뽕뽕이, 좋아하시네, 야, 야. 잡으면 없어, 주셔용, 산통다깨진다, 멍청이 우린 이거야 (목이 달아난다)
- ② 레슬러—쌍(트집調) 참새메(女子) 동물(女子)
- ③ 새서방—그 친(그 사람)
- ④ 올림픽소년—이 곰팡아(愛稱調)
- ⑤ 캥거루 씨—약이 올라(성난 것) 돌았나 쌍
- ⑥ 눈물젖은 소녀왕비—치겠다(매리겠다)
- ⑦ 사마이—살짜공이요? 앙! (긍정의 응)
- ⑧ 은모래금모래—돈이 썩어나나?
- ⑨ 어리병병—갈비, 역세게 재수없다.
- ⑩ 잔지발—잘 논다, (비웃는 調) 아주 알통이 가량이 재미있구냥 국물도 없다.
- ⑪ 사이곤—씨! (불만調)

f. 거칠은 擬聲, 擬音語의 濫用

大部分은 漫畫에 「퍽」「질정」등과 같은 擬聲語가 많이 쓰이고 있다. 漫畫에서도 映畫에서 처럼 「스릴」과 「action」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는 보다 刺戟的인 擬聲 擬音을 借用하는 일이 必要한 것 같지마는 그렇다고 立體的이랄까, 力動的인 所謂 聽覺性을 살릴 수 없는 것이고 보면 安承德 氏의 말과 같이 “效果보다는 不安定하고 不快한 느낌을 줄 뿐 調和된 상쾌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 까닭은 大體로 이런 手法를 쓰는 경우가 激鬪, 戰爭 등의 激情的인 場面인데다가 使用된 擬聲 擬音語도 이와 同類의 것으로 大部分이 硬音, 激音, 閉鎖音으로 되어 있어서 惝恍惚惚인 不安感이 앞선다.” 이들 擬聲 擬音語를 子母順으로 보면 대개 아래와 같다.

- ㄱ—과당 꺄꺄 꺄 꺄꺄 꺄이 꺄 꺄 꺄이익
- ㄷ—두루루 다르루 드르릉 딩 땡 땡 땡
- ㅂ—뽕 뽕 뽕 번쩍 뿌직 뽕 뽕 뽕끼닥 부르릉 뽕 뿌직뿌직
- ㅅ—사삭 속 삭삭 슈슈슈 쌍 썩
- ㅇ—으아 우악 으하하 이크 어 에취 에취 음 와와 어휴 으악
- ㅈ—찌리링 좌좌 쥘렁 쥘 쥘
- ㅊ—차르르 쟁강 칙 치 창 칙 철렁 철렁

ㄱ—각 캣 쿵 광크으 쿿 경경 카아 파르르 쿠왓카웃  
 ㄷ—탕탕 타탕 탁 타타타다 텍 털섹 텅 텃 투앙  
 ㅍ—팍 핑핑 펙 피 폭 풍덩  
 ㅎ—헉 히이 하하하 호훗 휘잉 호호훗 횡 후히히  
 흐히

g. 잘 못 되었거나 低俗한 表現

漫畫에 있어서 文章의 表現이 低俗하다는 것은 漫畫의 內容自體의 低俗性까지도 疑心하게 되는 것이어니와 用語를 엉뚱하게 使用한 것이라든지 低俗한 表現을 한 것 등을 보기로 提示하면 아래와 같다.

(1) 用語가 틀린 경우

- 오늘의 이수훈의 공로를 모두 내가 탄다. → 공로상(불개미)
- 병원에 야윈 두 뺨 → 병원에서 (어리병병)
- 문어냐? 사람이니? → 사람이냐? 「피노키오」
- 역적 집안이란 삼대를 멸한다 → 삼족(세서방)
- 릿이 이래? → 누가 (사마이)
- 땅이 울리는 쇼크로 → 진동 (잔지발)

(2) 尊卑語를 잘 못 쓴 경우

- 놀랐지? 公主를 모신 少年의 말투 (하얀공주)
- 아버지와 앵글 선장은 죽었던 말인가? (잔발)
- 걱정말고 다녀 오십시오 사장이 사등보고 (잔지발)

(3) 低俗한 表現

- 가만 있고 자시고 없다니까 (사이곤)
- 들이서 아주 짜고 논다 (레슬러)
- 불안 같은건 낚시질 가라 (레슬러)
- 개 새끼는 개아기 소 새끼는 소아기 (캥거루 씨)

h. 필요치 않은 外來語 使用

- 1) 目語—핫 (불개미) 코노야로 (까마귀)
- 2) 英語—찬스 (캥거루 씨) 고오 (go-사이곤)  
 켄·온(레슬러) 에스 마마(잔지발) 쇼크(잔지발)

(다음號에 繼續)

7) 세교육. 67년 10월호 서울. 大韓教育聯合會, p. 135.

**EASTERN CORPORATION**

1969 年度

**外國學術雜誌 및 單行本**

購入은 豊富한 資料와 正確한 서비스의

유네스코韓國委員會 쿠폰代行商社

**이 스티 商 事**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街 66의 4  
 大番 Bldg., 402 號室  
 電話(22) 4648 : 國際私書函 2797 號

學校圖書館  
 病院製藥會社  
 各研究所  
 公共機關圖書館  
 個人의 申請分

의 서비스